

# 민·관 함께하는 프로젝트... “행복한 삶 고민”

### 한림읍, 복지소외·문화격차 해소 위한 사업 전개 취약계층 돕는 ‘한수풀 기동대’... 치매제로 마을도 작은영화관 건립... 다시 걷고 싶은 녹색거리 조성

제주시 한림읍은 올해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열악한 환경과 결식우려 등으로 기본적인 식수 해결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장년·장애인 1인가구 등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프로젝트인 ‘한수풀 기동대’ 운영이다.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지역특성상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결식우려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장년·장애인 1인가구 등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연계해 함께 대상가구를 발굴(행복만남)하고 식당과 연계해 결식우려를 해소(행복애잔)하고 재능기부자 및 독지가와 연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행복가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행복만남 240명, 행복애잔 203가구, 행복가꿈 7가구의 취약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노인세대를 위한 ‘치매을 제로마을’ 건강한 한수풀 조성사업이다.

치매없는 한림읍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24개소 어르신(4월 기준 회원 3271명)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주관 치매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한림읍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별로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자율성과 사업효과가 저조함에 따라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기관 간 협업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선정과 의료차원의 프로그램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민관 맞춤형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수풀 기동대’. 사진=한림읍 제공

을 혼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역민의 영화관람 환경개선과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한림읍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다.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원의 투자돼 현재 한림체육관 야외공연장에 설치되고 있는 영화관은 상영관 1관(2D/3D 겸용관 59석)과 2관(2D 39석) 등 총 98석의 좌석수로 최적화된 영사시스템과 매점, 매표소 등의 시설을 갖춰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늘 꽃향기 나는 다시 걷고 싶은 녹색거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일주서로본, 해안도로본, 공한지, 오름, 공원 등을 찾아 꽃·나무심기,

가로수정비,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덕 1리 케불봉산-수원리 해안도로 구간, 일주서로 대립사거리~명월성 사거리 구간, 귀덕1리~귀덕3리 인도변 가로수 식재 구간에 마을별 특색있는 도로변 화사한 꽃길 조성했다. 수원리 용운동 삼거리와 동명저수지 사거리에 365일 꽃피는 한림읍 관문 꽃화단을 조성했다.

홍경찬 한림읍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기반으로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적·민간자원을 활용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 “어려운 이웃들 건강한 여름 보내길”

### 성산읍, 지역내 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냉방용품 전달



서귀포시 성산읍이 냉방용품을 지역내 취약계층 100여가구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성산읍(읍장 정영현)은 지난 11일부터 장애인가구와 홀로사는 어르신 등 지역내 취약계층 100여가구에 양산, 인견매트 등 300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배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냉방용품을 배부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방문 시 장마 및 폭염대비 주의 사항 안내와 건강 확인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원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영현 성산읍장은 “무더운 여름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을 위해 양산을 추가적으로 구비했다”면서 “다양한 냉방용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산읍은 외부 지원 물품을 포함해 470여가구에 쿨매트 250개, 선풍기 20대, 여름이불 200개 등 전달한 바 있다. 이태르기자

# 내달 2~4일 이호테우축제... 발전방안 논의

### 이호테우축제위원회 세미나 개최



이호테우축제위원회(위원장 고연중)는 지난 13일 이호동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테우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호테우축제의 발전방안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이호테우축제는 제주의 전통 어로문화인 멸치잡이(멸 그물잡이)를 재현하고 원단 고기잡이도 체험할 수 있다.

테우는 멧목을 가리키는 제주어로 제주도에만 있는 원시적인 고깃배의 한 종류이다. 통나무 10개 정도를 나란히 엮어서 만드는 데, 조립과 조장이 간편하고 풍파에도 견디지 않아 제주전역에서 널리 쓰였다. 제주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 한국선박사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민속 유물이다.

이호마을은 예부터 6월부터 9월까지 멸치잡이를 해왔다. 바다가에서 약 1km쯤 떨어진 바다까지 배들이 원을 이루며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잡아당기는 그물질을 한다. 이때 가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이 동작에 맞춰 후렴구를 함차게 부른다.

원단 고기잡이도 축제의 묘미이다. 해변에 돌담을 쌓아두고 밀물에 물러든 고깃배들이 썰물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장치해 둔 곳을 원(垣)이라고 한다. 고대르기자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담수풀장이 최근 개장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르기자

# “시원한 용천수로 무더위 날려요”

### 화순담수풀장 개장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담수풀장이 문을 열어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금모래 해수욕장은 맑은 수질과 인근 올레코스, 산방산 등 수려한 절경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담수풀장은 지난 2008년 개장한 이래 매년 도민과 피서객 등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폭 22m, 길이 40m에 최대수심 1.5m의 성인용과 최대수심 0.8m의 어린이용 풀장으로 구성된 화순 담수풀장은 워터슬라이드와 휴게시설

이 갖춰져 있어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금모래해변에 설치된 이벤트 무대도 조성돼 각종 공연 및 영화 상영 등 휴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담수풀장 입장료는 없으며, 물놀이 장비와 그늘막 등은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화순담수풀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순리청년회(회장 강경준)는 담수풀장 등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낸 수익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교복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준 화순리청년회장은 “시원한 용천수를 활용해 만든 담수풀장을 찾아 여름철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기를 바란다”면서 “화순마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르기자 ity9456@ihalla.com



### “소원 들어주기 공동 추진” 아라동·관련기관 협약식

아라동(동장 진흥구)과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호진)는 지난 11일 ‘제7회 행복+소원을 말해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 사업은 후원자를 발굴·연계해 지역내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뽕소 가지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소원’을 이루게 하는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고대르기자

### “신임리 수박 맛보세요” 한 달여간 직거래장터

제주시 애월읍 신임리새마을회(이장 박수철)는 본격적인 수박 수확철을 맞아 지난 13일 신임리 수박 직거래장터 개장식을 가졌다.

강재섭 애월읍장은 이날 지역 특산품인 수박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한 장터 운

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수철 이장은 “최근 곳은 날씨가 수박 농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임리 수박의 상품성을 알리고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리 수박 직거래장터는 앞으로 한 달 여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소매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수박을 구매할 수 있다. 고대르기자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업체

**10월 연휴 제주직항 동남아시아 라오스 패키지**

**자연이 주는 순수 라오스 5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타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10월 2일(화) 단회 1인 999,000원

전세계 상품으로 성인/소아 요금 동일합니다.

●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가는 자연이 주는 순수 라오스  
“기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가면 사람은 없다.” 최근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이름을 알린 동남아의 휴진주 라오스! 제주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라오스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가장 떠나고 싶은 지역으로 뽑힌 지역으로 여행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협찬: 티웨이항공

**라오스 골프**

3박 5일 (54홀)

**1인 1,290,000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피/전신마사지 1회 포함  
캐디팁 별도(18홀당 1인 10\$, 클럽중식, 싱글차지 별도)

포함사항 : 국제 항공료(TAX+유류할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여행자보험료

불포함사항 : 기타개인비용, 현지선택관광, 가이드기사 봉사료(3만원/1인), 부가세(VAT), 싱글차지

**예약문의** **늘푸른여행사 726-3344** **누리여행 758-5400** **파랑새여행사 744-1233**